

聖句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
이 저 안에 거시하고 저
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
라 (요한일서四章15節)

福音新聞
THE POK EUM SHIN MUN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集人 吳允台
發行 吳允台
主筆 田榮澤

社説
한目標한步調

오늘날 세계인류의 공동한
목표는 무엇인가 평화와 자유
의 새 세계를 건설하는 것
이 인류의 목표라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모든 민족 모든
계급이 자유를 누리고 불평
이 다같이 행복스럽게 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세계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이러한 자유와 평화
를 실현시키자는 목적은 다
같은데 다만 수단과 방법이
다른 것이다. 그 수단과 방법이
다르므로써 주의가 갈리고 따
라서 충돌이 생기고 전쟁도
생기는 것이다.

★ 지금 세상은 결국 모든 사
람이 행복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인류를 지도하며 또
싸우는 그 방법이 같지 아니하
므로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틀리고 목표가 틀려진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화를 무시하
고 사당도 종교도 짓밟고 중
오와 공포와 파괴로 목적을
달하고 해결을 짓자는 것은
본명이 악마적 방법이지요 결국
세계인류를 파멸에 접어 넣자
는 저주의 행동이다 따라서
그 목적 자체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그들에게는
파괴자세가 목적이니 할 수
있다.

★ 세계에서 양심있는 지도자와
정치가는 다 전 인류의 행복과
평화의 건설을 지향하여 노력
하며 여기에 배치하는 모든
나 공산주의 아닌 세력이나
여기에 배치되는 일이면 다 같
이 배격하며 싸울 것이니 우리
가 지지하며 목표상아 나아가
는 것은 참 사당과 형제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이다.

★ 우리는 결코 우리 민족만의
행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세계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간
절히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
계 모든 국민들이 특히 그러
도자들이 과연 진실하게 이목
표를 향하여 같은 보초를 취
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각
각 자기네 이익만 생각하여
다른 민족을 특히 약소민족의
불평을 무시하면 세계의 참행
복과 참 평화는 없을 것이다.
누구나 이 세계인류의 공동한
목표를 거스리는 방향으로 나
아가는 자는 길으로는 어떤
아름다운 『이데올로기』를 내세
우든지 그것은 세계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닐 수 없다.

綴字法廢止는不當
教育用語法案國會에提出
한글맞춤법은從前대로

訓令撤廢를要求
文總總會서決定書採擇

용어의 통일과 한문자 제한
설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의
처온바 였으나 이것이 법적인
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을 때
금번에 훈령八호 같은 발령이
내림은 민족문화의 역행임을
유감으로 여기고 국회의원을
중에서는 이 기회에 입법화하
려고하여 九十六名の 국회의
이 제七十차 국회에 교육용어
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출하는
이유에 의하면 『국가의 문화발
전을 기대함에 있어서는 국어
의 통일과 필요한 것인바 우리
용어 통일과 기초가 될 교육
용어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세움으로써 자손 만대의 문화

재(文化財)를 계승한다』 하였
으며 현재 문교부에서 채택하
고 있는 『한글맞춤법』은 우리
의 용어통일에 가장 악랄한
문화적 공로자인 세종대왕에
의하여 제정되고 일제(日帝)
시대의 한글을 무효로 조선
어학회로 부터 결집된 애국학
자

訓令第八號는무엇
國文綴字법에關한件
우리 한글은 元來 使用의 簡
便을 眼目으로 創造된것은 周
知의 事實이온데 現在 使甲하
고있는 綴字法은 復雜不便한缺
이 不少함에 비하여 此를 簡
易化하자는 大統領閣下의 本부
도 指示기에 當기四二八六年四
月十一日 제三十二間 國무회의

에서 정부文書 政府가 指定하
는 敎科書 타이푸라이아용 活
字는 今後 簡易한 旧綴字法을
使用할것으로 議決되었는바 其
中 敎科書 타이푸라이아 1천字
法에 關하여서는 準而上關係로
多少 制限되는데도 政府用文書
에 關하여는 즉시 간의한
旧綴字法을 使用하도록함이 가
다고 恩料되오니 以後依此施行
하기 訓令함

한 총리훈령 제八호에 대하여
전지한것을 거둬내고 현행의
한글맞춤법은 어떤 一개이나
어떤 一단에서 만들어진 것
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글학자의
(總意)와 전국인의 총지(總
知)로써 이루어진 가장 과학
적인 철자법이한것을규정하고훈
령제八호의 철회지시를 요구하
는 법안과결론(決定書)을 제
택하여 대우령을 비롯한 각계
요소에 발송하기로 하였다.
(決定書)
一 當기四二八六五號二十四日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文總會六
회총회는 전국문화인의 이름으
로 한글맞춤법에 관한 총리훈

★

이제 우리 자신이 각각 반성할것은 어떤 개인이나 이 세 개적 목표에 거스려서 저만 행복스럽었다는 개인주의를 가져서는 안될것이라는 것이다.

사회와 국가의 공동기구를 떠나라서 개인의 행복도 있을수 없는것이 현대의 사회조직이라 설혹 그것이 잠시 가능하다 처더라도 그것은 세계와 민족의 원수인것이니 엄한 제재를 받아야 할것이다 그런속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계적 후민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 견지에서 보조를 같이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할것이다.

지난번 우리국회에서 백두진 총리의 인준표표를 할때 소를 내놓고는 거개가 싸우는 나라의 목표를 위하여 혼연일체가되자는각으로 결속적 투표를 하였다는것은 근래에 드문드문한사람이 세계의 참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운동이나 사업이나 거기에 헌신하며 노력하는 사람이면 어디까지나 협력하며 붙들여 나아가야 할것이다. 우리의 한목표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조를 같이하는 날에야 세계에 새로운 시대가 올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새세계를 만드시는하나님의 경륜에 순응하는것이요 우리도 새세계를 짓는데 동역자가 되는 특권을 갖는데 이다. 힘컨대 직접 정치에나 문화나 종교운동에 있어서나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하여 한 보조를 취해 나아가자.

만약 조선國是國家의 武裝車隊
가入國하여 그後에 捕虜收容所
에 配置된다면 그로인하여 兇
生實事變의 本根과 상상치도못
할 流血의慘劇이 惹起되지않으
리라고는 아무도 보장못할것이
다.

第四 및 第七項目에 對하여 共
産國은 捕虜에 對하여 共産國人
중대한 위험과 호란을 야기시
킬 우명(虞萌) 사책임으로 이
에 즉시 철폐를 요구한다.

단기四二八六년五月二十四일
委員長 朴鍾和氏
더욱이날 당선된 위원과 특
표수는 다음과 같다.

△委員長 朴鍾和四五渠(再選)

行政部反省要請

四년만에 처음으로 한글학회
정기총회가 二十四일 하오두시
부터 시내 부대(釜大) 강당에
서 개최되었는데 문제는 총리훈

文敎部에서 具體案作成

지금 우리나라 임시 수도인 부산에 일본 거류동포 六十만 명의 이익을 주장 혹은 변조하기 위하여 거류민단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고 국회(國會)에는 김광남씨를 비롯하는 六명의 자가 버가 공인된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일교포의 관계문제에 있을때마다 협차계 주장과 변조를 하는데 월전에는 재일교포들의 자녀교육문제를 六항목에 보세 제출한바 국회와 우리정부 훈교부에서 구체안을 세운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훈교부의 구체적인 의한다면

是 二 部 別 也 政治會議의 移管
 한다는 共産黨提議案은 共産黨의
 解放期間中에 送還當否에 關
 意하지 않는 捕虜는 無制限限制의
 例를 當하게 된다는 것을 力度하
 여 善良한 捕虜를 도하여금 越
 越기 甘제送還을 容許하라는
 可중한 提議임은 容易하게 可
 주할수 있는것이 다. 만약 真正한
 中立國 公正한處地에서 捕虜의
 자유意思를 再打진한다면 그러
 한 조치를위한 시간은 不遇數
 日이면 足할것이다
 敵國은事情에 精通하지못한
 一部人士들에 依하여 大畧의인
 양모를한듯한 인상을 주려고
 努力하고있으나 敵國이 양모하
 였다고 주장하는部分은 性格
 自體가 어무니없는 恠證을위한
 部分이었던것으로서 이것을 양
 라고 칭할수없었던것이다.

을 감격히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앞으로 매
월 제 2일요일 하오 2시부터
정기정례회(定期會)를 가지기
로 하였거니와 六월十四일 처음
열리는 동정례회에서는 불허현
으로 신가입한 부대(諸大) 요
수허웅(許雄) 교수의 신연구발
표회가 부대당당에서 있으리라
하여 각개인사의 주의를 모두
게 하고있다 그리고 이날 새
로 선출된 이사는 다음과 같다
△인사장 최헌배 △이사 김윤
경 정인승 이희승 이락 삼지
영 김현구.

國民學校設立
具體案作成

일본八개도시(東京 橫濱 名古屋 京都 大阪 神戸 下關 福岡)에 十四개 국민학교를 세울것이라합니다. 이상의 八개도시는 현재의 예정地인데 정부로서는 건축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리라 합니다. 이 계획의 실시 여하는 현지 교포들의 설립 국민학교 설립 경영등에 관한 조지과 구체적 활동 정도에 따라 성패가 있을것입니다.

일본정부측에서 금년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면 일본에 거주하는 六十萬교포 중에는 등학제령자가 六萬八十여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교포들의 일정한 협력 기대됩니다. (金)

우리가 일본에서 일본사
람에게 여러가지 학문이고
기술이고 배울것이 많이 있
고 또 배워야 하겠지만 속
담에 도적질만하고 다 배우라
고 한 말도 있으니 부디
「스리」만은 배우지말아야
하겠는데 요새 김모 박모가
스리헌행법으로 검거되었다고
신문에나고 향간의 우리에게
명예롭지 못한 이야기거리가
심 모양인데 그들이 스리학
표를 열고 수십명 부하를
가지고 있다고 신문마다 대
서특서 그런데 이사람의 선
생은 의레이 일본양반이겠지
그리고 번번이 나쁜일에 사
대 프로다서는것이 불행이다。

宗教取扱に平等を約束

英國舊教徒들의要請에

원연에서 NCC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영국...

발언宣言

獨逸福音教會一九三四年記錄 예수 그리스도는...

유-고宗教迫害는如前 처首相은反省도없다

유고슬로마키아 처소인수 고 연방가입자는...

苦悶한二世紀의縮圖釜山

倫落群과孤兒浪人은激增

처참한 전쟁이 장기화 할수록 전제교아를...

集會의態

이제는 일을 중해서 당국을 내세워 하는일은...

韓國소년원消息

한글에서 부산군과 싸우고있...



使命・自由・責任 루즈벨트夫人의辯

요사이 일본에는 아메리카의 여결(女傑) 루즈벨트夫人이...

저인 직업에서 일할수 있게끔 되었다. 이것은 차별대우 철폐와 자유의식 투쟁의 결과다...

부녀들의 자기의 사명을 이겨 버리고 정부와 남쪽한 남자를...

이것이... (Introductory text for the collection of attitudes and topics)

集會의 態度와 課題

이것이...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이런...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이것이...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이것이...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이것이...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이것이...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이것이...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이것이...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이것이...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이것이...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이것이...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이것이... (Continuation of introductory text)

戰時下의 韓國은 勇敢 在日 僑胞의 奮起 期待

李大偉氏 本國視察談

日本에 재류하면서 노동문제... (Main text of the article)

서훈은 깨끗하고... (Continuation of the article)

이것이... (Continuation of the article)

베드로 전서

(新約 講解)

求道者

이것이... (Text of the sermon)

이것이... (Text of the sermon)

이것이... (Text of the sermon)

이것이... (Text of the sermon)

講 壇

성신강림

사도행전 1장 4-8
十二절—二장四절
李宗憲牧師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1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르매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였고 2절에는 "홍언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크고 금한 바람같이 제자들이 있는 집에 충만하였다"고 하였고 3절에는 "복받은 혀가 갈라진 것이 저들을 각사위하여 임하였다"고 하였고 4절에는 "제자들이 다 성신의 충만함을 받아 각국 방언을 성전과서 말하게 함으로 말하더라" 하였다.

그러면 이 오순절날에 제자들은 아오준비도 없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전능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여러가지 준비를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한 준비를 하고 기대되고있는 그곳에 임하여 옵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온전 한 곳에 모여 한가운데 모은 듯으로 모든 결합을 모으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곳 임간의 준비가 완전정비된 곳에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가 있습니다. 만일 교우들에게 성령의 죄로 범죄하여 속이 더러운 넘쳐나는 것을 그대로 덮어두기만 하면 "베레크스트" 성신이 감동하는 부흥의 성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레크스트란 유전적 후 50日後되는 후수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날은 유대사람은 전일 하루를 절하기도를 한다. 이 때 제자들도 절하기도를 하였는데 우리교우들은 일주일간의 한 번씩하는 주일기도회라도 회개도 나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傳道欄

나라와공의

예로부터 어떤 나라나 정의 행해질때에 흥하고 쇠가 성할때에 망했다는 것은 역사를 보아서 알수있다 우리나라고 려만연에도 온갖 죄가 성해서 망하였고 이조만연에도 왕실과 정치장은 사람들이 여지없이 부패하여 마침내 망하였다 그 때에 왕가에서나 재상이나 정 치장은 고관들이나 발탁 지위 와 전세싸움에 사람을 무수히 죽이고 가진 약한 일을하였다 그러므로 그때 웅만한 사람들 은 잠시도 마음놓고 살수가 없었다 마치 요새 공산정치가 대있는 사람모양으로 늘 벌벌

떨고 살았다 그러는 동안에 위에서는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백성의 생활은 말할수 없이 비참하였다. 로마의 만연에도 역시 그랬다. 도덕이 말할수없이 부패하고 죄악이 극도에 달한 결과 망대한 로마제국도 나타나고 말았다. 남자가 말할수없이 남한 여자들의 하라는 일이 많고 극장에서 사람들은 소와 싸우며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대충은 기뻐하였다 어떤 역사가는 이 상대를 평하여 도덕 적 발광시대라고 하였다. 일본도 세이차 세계대전 때

에 경기가 매우 좋아지자 모 든 불자가 흥분하여 다사 사치와 오락 유혹이 높아가면 다사치 발광과 음란과 갖 은 패권이 높아지고 일련으로 살인 강도가 성할때에 반동과 요란이 가득한 군벌은 전쟁 일으켜서 결과 나라는 파멸의 수레를 당한 것이다. 나라는 근본부터 신앙과 정의의 터에서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변 처음에 그 건국조 상이 영국서 건너올때에 이미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위하여 폴 신앙의 자유 를 찾아왔는것이 신앙의 조 상 정교도들은 오늘날 미국의 건국조상이었다 그리고 와신은 이나 제헌헌장은 지도자는 자 유를 찾고 정의의를 옹호하기 위



學校講座
教會學校
教師

教授結果의測定

魯安理

(三)

3개의 과제 일정에 서는것. 약간한 중상에 삼상하고 물 고불고 성내며 복수하는 사람 이 많은데 이런 사람은 사물 을 주관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비록 작은 일에 성지라도 이런 사람이 생길 때에는 그 본인 은 물론 고등 전제에도 불행 한 결과를 가져 온다. 불행은 귀는지 근친의 상사(喪事)가 발생한것으로 그만 낙심하여서 신안까지 건져쳐우는 사람도

가끔 보는데 종교의 교사는 그 학생을 지도하여 비평 받 으면서 혹은 곤난을 당하면서 혹은 실망 중에서나 성공 중 에서 혹은 자기의 장점 단점 에 대하여서 항상 객관적 관 점에 있어서 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4개가 소속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의 그 태도도 그의 종교적 활동을 잘 측정할수 있다. 보통학교 혹은 운동장에

서 그는 보통 학생 이상으로 천천한가 협력적인가 신념있게 거동하는가 기지 있게 행동하 있는가? 또 남보다 더 긍정하 게 더 선하게 지나고 있는가? 청년들이 리크리에이션 같은 데서 생활하는것을 이 방법으로 측정하는것도 좋을것이다. 또 노동조합원 고용인 정치단 체 교회원 교회직원등에 응용 할수도 있을것이다. 이러한 단 체에서 신자로서 정의를 무엇 보다도 먼저 세우는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의 종교는 아직도 그 역할을 다 못했다고 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교 사는 그 학생을 가급적 친절 히 알아야 한다는것을 다시 강조 할수 밖에 없다. 三 各급활동(學級活動) 클라쓰가 학생의 종교적 발 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상 다면히 배사의 기쁨을 실시하 게 될것이다. 이 점에 관하 여 그 결과 측정 방법 몇가 지를 생각해 보자. 1 학생을 자신이 자기들 힘 으로 기쁨을 세우는가? 학생 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 기 췌를 촉진시키며 연구하여 그 것을 완성시키는 노력을 하며 또 그 실행한 뒤결과를 비판 하며 부족한 면을 깨닫는가? 교사하는 자기도 그 고들의 열정이란것을 잊지 말아야

하여 죄를 풀리고 싸우므로
 일국 아메리카 합중국을 건설한
 것이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
 았지만 근자의 미국사회의 부
 패와 퇴락상은 뜻있는이의 거
 정거리가 되고 있다.『의는 나
 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유되게 하나니』한 잠언의 말
 솜은 과연 세계역사에서 진리
 인것을 증명한다. 『덴마크』는
 지금 세계에서 비록 작은 나
 라라도 세계에서 오법적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모든 나라가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형편이다
 누구나 六十세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그 생활을 보장해 주
 고 병이나면 치료비도 나라에
 서 내준다. 감옥에는 범죄자가
 거의 없다. 식량이 넉넉해서 누
 구나 자양분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다 행복스러운
 생활을 한다.

그러나 이나라도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었다. 전쟁에 저서
 나라가 말할수없이 혼란에 빠
 졌다. 날마다 범죄가 늘어 가며
 어찌할 도리가 없고 거의 회
 망이 보이더니였다.

그러나 이때에 그분복자왕
 을 출현한 지도자들이 일어나
 서 백성에게 바른 마음을 주
 기를 힘썼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를 꾸준히 하였다. 그
 리하여 백성들이 차차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
 래서 결국 지금과 같은 나라
 가 된 것이다.『의는 나라를 영
 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과연
 진리다.

최근의 동계를 보면 일본사
 람의 평균수명은 본시 五十年
 이던것이 一九五〇년에 와서는
 평균 六十이 되었다고 그네들
 은 이것을 대단히 기쁜 일이
 라 한다.

그러나 그반대로 최근에 경
 기가 좀 좋아짐을 따라서 범
 죄자는 점점 늘어가서 지금
 감옥과 보초소에 있는 죄수가
 십만명이상이라고 한다. 이것으
 로 보아도 그들의 장래는 다
 시 위험하다고 보겠다.『죄는
 백성을 유되게 한다』는 말씀
 은 과연 역사의 사실이 증명
 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이
 다.

나라만이 아니다 한 개일도
 마천가지다.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길로 나아가는 자
 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후

물결적으로 부요하지 못하더라
 도 마음의 구형한 복을 받고
 모는 사람의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반면에 게으르고
 진실치못하거나 죄를 짓고 불
 의를 행하는자는 반드시 그
 보응을 받아서 결국 패망을
 당할것이다. 죄와 불의를 행하
 는자가 일시적으로 물질적인
 성공을 할런지 모르거니와 그
 나마 오래 못갈것이고 더욱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불행에
 당할것이다.



꽃주의의由來와意義

(六月월재主日)

전일 「어린이날」을 지냈는데
 또 어린이主日 이라니 원할인
 가 하시는 이들도 없지 않을
 줄 안다. 전일 五月五日에 지
 난 것은 일반적으로 지킨날인
 데 「어린이날」이라고 보통
 불려 왔던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六月을
 패본 主日을 「어린이主日」이라
 고 오래 전부터 지켜 오는
 것이다. 오래 전 이라고 하여
 도 아직 백년이 조금 다 못
 된 때 일이다.

一八五六年에 아메리카 마사
 츠세츠州 웨슬리 라는 곳 제
 일 유니버서리티스트教會의
 프레오날드 라는 목사가 어
 리이들을 깊은 신앙에 인도하
 려고 늘 노력하다가 장미꽃
 피는 六月 무렵에 어린이
 이들의 부모들과 함께 자녀를
 하나씩 바치는 날로 특별예
 배를 하였다. 이 일에 맨처
 음으로 찬동한 부류그린의 리
 차드드스도어스박사는 아를담
 게 꽃으로 장식한 제단 옆에
 서서 그 해에 일곱살된 아이
 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는
 아이들의 생일을 기입(記入)

한 성경에 목사의 서명(署名)
 을 한것과 꽃무늬 하나씩을
 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하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퍼져서 해마다 여기 저기 교
 회에서 같은 일들이 이러나더
 니 一八六八年에 이르러 아메
 리카 감리교회에서는 六月
 卅主日을 「어린이主日」로 지
 키기로 결의하였고 그것이 오
 늘날에는 세계각국교회의 형사
 로 되었다.

그후 一八七〇년에는 같은
 마사츄세츠州 파월市的 조
 합교회 목사가 「사촌의 장미꽃」
 이라는 명목으로 흥미로운 푸
 로그램을 지어 어린이들 예배
 드렸다는데서 「꽃주일」 혹은 「장
 미주일」이라고도 부르게 되었
 다.

오늘날은 각 교회에서 이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온
 꽃들을 가지고 병원에 쓸쓸하

당할것이오 여러가지로 그
 격과 보응을 받는것이다.

한 민족과 사회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 되는 마치 약
 한 병균같은 독소와 잘아서
 사회나 국가를 망치는것이오
 진리를 따르고 정의의 행하는
 데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
 을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전에는 말할
 것 없고 지금 전쟁중이라 한

게 누어 있는 환자들 방문하
 고 혹은 주일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소사와 교사와 병석
 에 있는 어린이들과 자녀없이
 양로원에 있는 늙은이와 부모와함
 께가정에 있지 못하고 고아원에
 있는고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
 기도함으로 이날의의를 세우지
 하는것이다 (繼)

구마오도교회에서는 금년에
 一百二萬圓예산으로 예배당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준공은
 七월말인데 약五十萬의 부족을
 각교회의 원조에 기대하고 있
 다. 이 교회가 건실하게 장성
 하여 가는 배후에는 안영준목
 사의 노력과 그의 지도로 신
 앙에 불타오르는 청년남녀들이
 있는 까닭인데 지난 주일에는
 면려청년회가 안학도씨를 회장
 으로 하고 조직되어 금후는
 보다 더 조직적인 활동이 기
 대된다 (Y記)



면역 여러가지 죄악이 행되
 는데 정치자는자나 일반국민이
 나 다같이 그 죄를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해의에 있는이들도 이땅에 약
 한때 머물고 이기적 영욕적으
 로 흔들리며 죄를 짓는자가
 되지말고 바른길로 나아가서
 축복받는 국민이 되려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신라(新羅)의 옛도읍이 있
 던 경주(慶州)가 지금 우리
 들에게 읽기 알리워심은 흥경
 의 아름다움이 있음이 아니고
 신라의 미술과 문화의 유물과
 유적으로 말미암은 것이 매력
 이 있어 그윽히 감정이 끌리
 우는 것이다.

신라의 것이라하면 경주에는
 불국사(佛國寺)가 있고 따라
 서 석굴암(石窟庵) 등이 가장
 구 시대의 소식과 의의(遺義)
 를 말없이 가르치는 것이나
 오늘날의 인간은 거기에 남지
 는 석조조각(石造彫刻)과 무
 수한 공예품과 남겨진 건조물
 (建造物)의 남은 구조에서
 그들의 지금은 흔적이 그으려
 진 여러가지 문화의 꽃이와
 깊은과 넓이를 상상할수 있다
 또그배후에 그런 것들을 지어

민족의 기혼
 을 만질듯 함
 과 동시에 그
 현 예술현의
 깊이와 위대성
 이 있었음을 읽
 할수 있고 그
 깊이와 위대성
 의 배후에 숨
 은 역사에 존경
 심을 이끈다고
 도 할수 있는
 것이다. 장으로
 역사를 읽고
 예술을 이해(理
 解)한다는것은
 그런에서 이러
 다 할것이다.

慶州



訓令八號를是非

김 윤 경

四月二十七日 敍國무총리는
현행 철자법을 폐지하고 구 철
자법(?)을 쓰라고 각 부처와
도지사에게 훈령을 내리었다
그런데, 五月十二일 김문교장관
은 이러한 결정은 곧 맞춤법
을 폐지하고 구식표음법을 재
택한다는것이 아니고 현재의
철자법의 번잡성과 불비점을
시정해보려는 노력의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현용 맞춤법을 그보다 더 알
기 쉽고 쓰기 쉽게 하는 방도를
국어심의회를 조직하여 여기에
서 학문적으로 검토 또는 강
구하여서 장차 개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근본의 도이므로 이
결정은 맞춤법을 쓰지 말고 표
음으로 대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문교부로서는 어떠한 결
론을 보기 전에는 맞춤법을 통
폐할 생각도 없으므로 일
반 국민은 오해하지 말기를 바
라나고 기자에게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명령이 검거지전
일반국민은 안심할 수 없다. 나
는 기자의 연구에 좇아 간단히
나의 이 명령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어느 사의 부락으
로 썼던 것을 다시 간단히 추
려보기를 말하여둔다.)
첫째 무엇보다 한글은 권력
이나 법률로 좌우할 수 없다는 것
을 확신한다. 한글을 권력으로

간섭하고 통제한다면 한글은
도리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독한 전제정치를 쓰던 일본
도 한글은 건드리지 못하였다
대학의 강의실에는 형사가들
어가 지 못하였다. 학원에서는 천
황은 신성하여 범하지 못한다
한 헌법 조문도 불경죄에 거
리 강령이 자유를 보장하고
강의할 수 있었다. 이는 한글발전
이 없이는 민족의 문화가 발
달할 수 없고 문화발전이 없이는
민족의 행복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유를 근본이념으로
삼는 민주주의 나라에 있어서
학술을 한 장의 명령령으로 폐
지하고 무법상태로 돌아 가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명치유신 초에 삼유
례(森有禮)라고(?)하는 문
부대신이 어느 미국인에게 일
본문을 폐지하고 영문을 쓰자
고 제의하였다고 하여서 오늘
날까지 웃음거리가 되어 전하고
있거니와 이번 과학적인 현행
철자법을 폐지하고 마음대로
물라자라함도 그와같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만일에 전차電車나, 기차火車
나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것을
만들어쓰기 위한 과학은 이해하
기 어려우니 폐지하고 절어다니
는 구법으로 돌아가자 한다
그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 그

한글 표 실

(제 9 시간)

담 당 張 曉

지난 시간에는, 맞춤법은 무
엇이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였습
니다. 이 시간에는 통일안에
나타난 맞춤법의 원칙을 말하
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語法)
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통일안 총론 1]

표준말을 가지고 그 말의
말소리대로 적어야 하는데, 단
순히 말소리대로만 적고 보면
“먹는다” 보다는 “멍는다” 가
더 말소리에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자란 소리표만
인 것이 아니므로, “먹고, 먹으
니, 먹으면”의 “먹”과, “신는
다, 잡는다, 짓는다”의 “는다”
가 어울려서 “먹는다”가 되
는 말의 법칙(=말본, 어법)
에 맞도록 적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표준말을 그
말소리대로 말본에 맞도록 적는
것이 맞춤법의 근본 원칙입니

다. 다시 실례를 들어 설명하
겠습니다. 요즈음 어떤 단체의
포스터에 “뭉이자!”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에 대하여 생
각해 봅시다. “뭉이자”의 “古”
소리가 다음 “이”에 이어난다
고 보아 말소리에 맞았다고
합시다. 이 번에는 말의 법칙
(말본)에 맞았는가 봅시다.
“뭉이자, 죽이자, 속이자”에서
와 같이 “뭉이자”가 임음(使動)
도 하임(使役)도 아니요, 그
저 “古”의 동이므로 적대

적어도 맞춤법에 맞지 않습니
다. 표준말을 말소리대로 말본
에 맞도록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 표준말이란 무엇인가?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
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 말
로 한다.” (총론 2)

이것이 표준말의 범위입니다.
첫째 “현재”라 함은, 옛말(古
語)이 아니고 지금 쓰는 말
이라 함이요, 둘째 “중류 사회
라 함은 일부 첨단(尖端)을
검는 사람의 기특한 말이나,
일부러 일반 서민과는 다르게
하노라고 아주 뽐내어서 하는
말이나, 또는 아주 교양이 낮
은 일부에서 쓰는 고약한 말
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
이 말하는 중류 사회의 말이
며, 셋째 “서울 말”이, 표준말
이 된다고 대체로 그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범위 안에서, 서울 및 각 도
(道)의 대표 위원 73인 으로

된 표준말 사정(査定) 위원회
에서 2년에 걸쳐서 각 방면
의 의견을 참작하고 가장 합
리적 방법으로 쉬갈리기 쉬운
상용어(常用語)를 심사(審査)
하여 표준을 잡아 1936 년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올다 내가 올다 할 것 없이
이 사정된 표준말에 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표준말만이 우
리 겨레의 공통어(共通語)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낱말(單語)을 띄어서
적은 것이 맞춤법의 한 가지

꽃주 노래

一오늘은 꽃주일
우리들의 날이란다
이 하늘 이 땅에
꽃이 가득 차구나
꽃간 꽃도 피고

향기를 뿜나니
나비 춤을 추누나
노랑 나비 뽀뽀
하얀 나비 뽀뽀
三오늘은 꽃주의

쉬움지는 모르나, 앞은 사
크히 근근하고, 국어 어
이다. 법이 있는 사치하면
마음의 편대로 가지고있
의 물건은 태우고 있고있
남의 고운 옷을 태우기도
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살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
이 나 이것도 마음대로 태
같 것이다. 그러면 하루라
심하고 살지 못했 것이다.
그러므로 좀 법을 지키기
려고 복잡하더라도 무법한
회에서 살자고 주장하는 사
하나도 없다. 자기에게 편하
고 공동으로 살기에 편하게
법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주의 사회생활방식이다. 말
의 법도 혼자 살면 필요없
공동생활하는 사회에서
살게 되

「모히자」로 할 수 없고, 「모히자」로 해야 할 것입니다. 「모히자」로 적으면 맞춤법에 맞았는가? 아닙니다. 「모히자」는 표준말이 아닙니다. 「모히자」가 표준말입니다. 표준말이 아닌 말을 가지고는 아무리 말소리와 말본에 맞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에 붙어 씀다. (총론 3) 이 「토」라 하는 것은, 입자세에 붙는 것만이 아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진 말에 붙어서 그 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전부 붙이는 것입니다.

노랑 꽃도 피고
우리는 꽃이다
노래 하는 꽃이란다
우리는 꽃이다
노래 하는 꽃이다
노랑은 꽃주인
송이송이 꽃이란다

이 강산에 피는꽃들
하나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린이 찬송가에서)
(제100장에 곡조가 있다)

「모히자」로 할 수 없고, 「모히자」로 해야 할 것입니다. 「모히자」로 적으면 맞춤법에 맞았는가? 아닙니다. 「모히자」는 표준말이 아닙니다. 「모히자」가 표준말입니다. 표준말이 아닌 말을 가지고는 아무리 말소리와 말본에 맞게

「모히자」로 할 수 없고, 「모히자」로 해야 할 것입니다. 「모히자」로 적으면 맞춤법에 맞았는가? 아닙니다. 「모히자」는 표준말이 아닙니다. 「모히자」가 표준말입니다. 표준말이 아닌 말을 가지고는 아무리 말소리와 말본에 맞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에 붙어 씀다. (총론 3) 이 「토」라 하는 것은, 입자세에 붙는 것만이 아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진 말에 붙어서 그 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전부 붙이는 것입니다.

노랑 꽃도 피고
우리는 꽃이다
노래 하는 꽃이란다
우리는 꽃이다
노래 하는 꽃이다
노랑은 꽃주인
송이송이 꽃이란다

이 강산에 피는꽃들
하나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린이 찬송가에서)
(제100장에 곡조가 있다)

「모히자」로 할 수 없고, 「모히자」로 해야 할 것입니다. 「모히자」로 적으면 맞춤법에 맞았는가? 아닙니다. 「모히자」는 표준말이 아닙니다. 「모히자」가 표준말입니다. 표준말이 아닌 말을 가지고는 아무리 말소리와 말본에 맞게

小説 새벽 종 (十四)

田榮澤 作

한글新約聖經
定價 120圓

한글新約聖經
懷中版 定價 80圓

우리가 오래 기다리던 한글 성경
자본에 따라서 개정된 이 책을
한사람이 한책씩 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發行所 **韓國聖書公會**
日本取次店 東京都銀座4ノ2
日本聖書協會

基督教兒童教育研究會編集
어린이찬송가

定價 圓

찬송가 (合同)
……三八〇圓
……三六〇圓
……二〇〇圓

無曲
發行所 釜山市昌善洞一街三八
大韓基督教書會

毛糸専門店
其他衣料品
都散賣商

安田商店
主安學道

熊本市下通町二丁目九六番